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풀죽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라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트트생활채널	40 월화 드라마 <블러드>(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초추출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그린실버 고행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요말	55 이웃집 찰스(재)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 매거진 2580(재)	00 SBS12뉴스 45 닥터365 55 KBC 열린토론회(재)
1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10 꾸러기 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55 날씨와 생활
2	00 빛고를 행복이카데미(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엄마의 탄생(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크 현장 고행이 보인다
3 00 직안직설	00 콘서트 필(재) 50 KBS 파라노말 플러스	45 후토스	00 MBC 뉴스 10 내사랑 똥 40 문화이슈	00 SBS 뉴스 1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재)
4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4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채상 위키 40 TV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우리 그래피	10 외계가족 출리풀리 40 동물의 세계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스페셜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 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순이의 토코드라마 <그대가 꽃>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처녀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반려동물극장 <단팹>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블러드>	00 월화 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거나>	00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11 00 두근두근 감동카메라 미사고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테마여행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20 모쿠드라마(싸인)(재) ①:30 독한인생 서민갑부(재)	20 해외갈락티드라마(닥터 후) ①:10 해외갈락티드라마 <심층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특파원 현장보고(재) ①:25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재)	15 MBC 뉴스24 45 실맛 나는 세상 스페셜 ①:45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스페셜 베스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5:30 건강한 아침	09:40 토크쇼 부모 - 고수다	14:45 미행미로봇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크 오일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세이셀군도 대탐험>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행
07:30 출동! 슈퍼왕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우리는 섬으로 간다 신안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1:50 EBS 다크프라임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골디와 친구들(재)	<위대한 비밀탐>
08:20 두다다콩(재)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00 Why - 최고! 호기심딱지	22:45 달라졌어요
08:35 Why - 최고! 호기심딱지	13:40 출가운 수학 EBSMATH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꼬마 철학자 유고	17:30 뽀롱뽀롱 뽀로로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45 꼬마버스 타요	24:05 EBS 인문학 특강
09:2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퓌! 보니하니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재)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1:40 " <문학-알짜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B형>
02:30 " <미적분1>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재)
03:20 " <수학 1>	15:40 " <미적분2>(재)
04:10 " <미적분1>	16:30 " <수학 1>(재)
05:00 뉴탐스런 <물리>	17:20 " <미적분2>(재)
06:00 " <생명과학>	18:10 뉴탐스런 <물리 1>(재)
06:50 " <동아시아사>	19:10 " <생명과학 1>(재)
07:40 "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2016 수능특강 <영어a>(재)
09:20 " <심주석의 수학>	21:50 " <수학a>(재)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a>	22:30 최재현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1:00 " <수학>	23:10 2016 수능특강 <국어b>
11:50 배움플러스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	<국어 4-1>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 5-1>
08:00 행정사 시험대비 강좌	16:50 "	<국어 6-1>
08:30 9-7급 공무원시험 문제풀이	17:20 백점명작 중학수학1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국어5⑥>
09:10 TV 중학 <국어1②>	18:40 "	<수학 3(상)>
09:50 " <수학(상)>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10:30 " <역사 1>	20:00 EBS 기획특강	
11:10 " <국어3④>	20:50 EBS 기획시리즈	
11:50 " <수학 2(상)>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13:10 등업신공 <수학1(상)>	22:00 중학 중-기 시험대비	<과학2-1>
13:50 중학 중-기 시험대비 <과학1-1>		
14:30 등업신공 <수학2(상)>	22:40 등업신공 <수학 3(상)>	
15:20 초등 중간학업 성취도평가대비 <국어 3-1>	23:20 필독 중학 <사회1>	
	24:00 왕기초 중학 <수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0일(음 2월 11일 乙巳)

子	48년생 전방위적인 정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60년생 평생 시에 잘 갖추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덕을 보게 되리라. 72년생 거주장소라면 두 말 없이 청산하라. 84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12, 38
丑	49년생 굳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국면이다. 61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73년생 배려하는 입장에서 사다보면 2인 일도 풀리리라. 85년생 기운차 게 붙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6, 21
寅	38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 50년생 길인을 만나리라. 62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74년생 일단락 지어놓고 보자. 86년생 흥내 내다가는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0, 80
卯	39년생 경계해야 할 때다. 51년생 의미 있는 하루가 전개 될 것이다. 63년생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니 계속 밀어 붙여라. 75년생 긴장된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살펴라. 87년생 우연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8, 31
辰	40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52년생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느니라. 64년생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 상황임을 감안하자. 76년생 예전에 접해 보지 못했던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54
巳	41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점검해야 후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53년생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65년생 기대 했던 바와 정반대의 결과가 귀결 될 수도. 77년생 동기가 절실해야 일차다. 행운의 숫자 : 55, 01

午	42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54년생 굳이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66년생 보편적인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78년생 깊이 성찰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62, 10
未	43년생 처음에는 고소스러우나 나중에는 편안하리라. 55년생 바퀴 달린 것은 전부 조심해야 하느니라. 67년생 신규는 절대로 아니 되니 꿈도 꿔서는 아니 되겠다. 79년생 경계심을 버리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0, 56
申	44년생 머리로서 파악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써 공감하자. 56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때 매사가 풀리겠다. 80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안정 궤도로 이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28
酉	45년생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57년생 아무리 사소하게 여겨지더라도 결심부터 치우라. 69년생 일단 피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니라. 81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9, 71
戌	46년생 철저히 살핀다면 방안이 보일 것이다. 58년생 상대적 이니 만큼 처리를 잘 해야겠다. 70년생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불완전하다. 82년생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기대에 불만이다. 행운의 숫자 : 87, 79
亥	47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59년생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71년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에 주목하자. 83년생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의문점이 남는다. 행운의 숫자 : 20,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각박한 세상 속 설렘을 느끼게 해줘”

영화 '장수상회' 서 '성질' 역 박근형

배우 박근형(75·사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재벌가 회장님'이다. 그것도 카리스마 넘치는.

27일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박근형은 “카리스마 있으면 박근형이고 회장님은 박근형이라고 이미지가 굳어버린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1958년 연극을 시작한 그는 1964년까지 연극 무대에 서다 TV 드라마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1974년부터 영화에도 출연하며 현재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연극에서는 할아버지 역할을 많이 하고 TV에서는 멜로 드라마 주인공을 많이 했죠. 하지만 40~50대 되니까 어정쩡해서 할 게 없었어요. 3~4년을 딜레마에 빠졌죠. 자칫하면 연기를 그만둘 지경이었어요.”

그때 ‘역할 창조’에 대한 논문을 접하게 됐다. 주인공뿐 아니라 모든 배우가 역할에 대해 창조하는 것을 극대화해야 극 전체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 바로 이거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민하다 연극 한편을 하고 돌아오니 고(故) 김중학 PD가 ‘여명의 눈동자’를 해 보겠느냐고 했어요. 약역이고 주연도 아니지만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 아주 잔혹한 역할을 하고 이후에 ‘모래시계’를 거쳐 ‘추적자’까지 하는 동안 이미지가 굳어버렸죠.”

박근형은 “과거에는 이상의 ‘날개’와 같은 문학작품을 많이 하면서 지식이 있되 용기가 없는 사람을 많이 표현해 왔는데 그게 다 밑으로 가라앉아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런 와중에 만난 작품이 바로 강제규 감독의 신작 ‘장수상회’(4월9일 개봉)다.

“장수상회”에서 박근형이 맡은 역할은 70세 연에 초보 ‘성질’이다. 무뚝뚝하고 꼬장꼬장한 성격의 성질이지만 앞집에 사는 꽃집 여인 ‘금남’(윤여정)과의 첫 데이트를 시작으로 서둘러지만 가슴 설레는 연애를 선보인다.

“노년을 다룬 영화의 주인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일이었죠. 한때 기회가 왔구나 생각했어요. 사랑을 근간으로 이뤄지는 감동적인 드라마는 것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전 내가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박근형은 “10대든 20대든 70대든 사랑에 대한 설렘은 다 똑같다”며 “노년이지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극학도 시절처럼 한 단위씩 쪼개서 연극처럼 역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규 감독이 편지로 감싸줘서 참 감사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 인성에 대한 극이 별로 없어요. 거칠고 경쟁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거지, 승리한 자가 진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갖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게 없죠. ‘장수상회’는 보고 난 뒤에도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이런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사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더 열지 않을까요?”

박근형은 “나한테는 ‘장수상회’가 엄청난 선물이고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많은 연극 작품과 드라마, 영화에 출연해 왔지만 박근형은 여전히 “역할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했다.

“수없이 많은 작품에 나오는 역할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죠. 젊은 사람의 역에도 욕심을 내요. ‘저 역할을 만약 내가 했으면’ 하면서 자꾸 집을 지었다 열었다 합니다. 윤여정 씨가 핀잔도 많이 줘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고.”(웃음)

최근에는 어떤 역할이 욕심 났느냐고 물었다니 바로 최근 종영한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 현빈이 맡았던 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중 성격에 관한 역이요.(웃음) 새롭게 보이는 역할이면 뭐든 다 하고 싶고 설게도 해보고 그림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를 부르지 않을 때까지는 (욕심) 계속 될 것 같아요.”(웃음)

“다중 성격에 관한 역이요.(웃음) 새롭게 보이는 역할이면 뭐든 다 하고 싶고 설게도 해보고 그림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를 부르지 않을 때까지는 (욕심) 계속 될 것 같아요.”(웃음)

“다중 성격에 관한 역이요.(웃음) 새롭게 보이는 역할이면 뭐든 다 하고 싶고 설게도 해보고 그림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를 부르지 않을 때까지는 (욕심) 계속 될 것 같아요.”(웃음)



“용산 삼각지 기웃거리며 사람들 관찰했죠”

SBS ‘풍문으로 들었소’서 서형식역 장현성 “꼭 해보고 싶었던 역할”... ‘깨알 재미’ 선사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라 제안을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검사, 의사, 대통령 경호실장, 방송사 기자 등 어느 순간부터 어수룩하게 권력을 가지거나 권력을 등에 업고 뒤편을 하는 강한 캐릭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권력을 휘둘러며 사는 인물을 하려고 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배우 장현성(45·사진)은 이렇게 말하며 서형식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게 재미있다고 말한다. SBS TV 월화극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빛바랜 올랐을, 별별없었던 서민 서형식을 연기하는 그는 때로 현실감이 풍성하게 묻어나는 세밀한 연기로

손에 잡히는 ‘깨알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서형식은 용산에서 장사하며 사는 서민이다. 장현성은 그런 서형식을 연기하기 위해 “용산 삼각지를 몇몇 번 기웃거리면서 사람들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너무 막연했고, 그럼에도 뭐라도 해야 하니까 무작정 용산 삼각지 일대를 찾아갔어요. 가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선술집 같은 데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우리 아버지, 삼촌 같은 평범한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연구했죠. 늘 약한 것도 아니고, 늘 착한 것도 아닌 사람들은 평소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서형식을 연기하다 보니 지금은 ‘아, 서형식 같은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싶어요.(웃음)”

서형식은 꼼꼼없이 청소년 미혼모가 되는 줄 알았던 여고생 둘째딸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오간다. 딸이 아바 없는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게 아닌가 절망하다가, 딸이 알고 보니 최상류층 자제와 눈이 맞아 사고를 쳤고, 마침내는 결혼을 하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한다. 그리고 다음엔 은근히 욕심이 생긴다. 사단대에서 똥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사단이 생기니까 좋죠. 똥가 경제적 지위를 버리기도 하고, 입사시험에서 서류통과도 못하는 큰딸을 취직시켜주지 않을까 기대도 하죠. 하지만 정서적으로 갑질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웃음) 서형식 정도 되면 강자도 아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어디서 10만원이 생겨서 주변에 막걸리라도 살 수 있게 되면 생색을 되게 낼 사람입니다.”

장현성은 매 순간 ‘찌질’하면서도 처량한 서형식의 처지를 세모가 살아있게 연기한다. 그 자연스러움이 놀랍다고 하자 그는 “대본에 적힌 활자만으로는 연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촬영장에서 배우들끼리 대화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장현성은 ‘풍문으로 들었소’에 앞서 ‘아내의 유혹’과 ‘밀회’로 정성주 작가-안판석 PD 콤비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특히 ‘아내의 유혹’에서 보여준 방송사 기자의 ‘알랑한 갑질’ 연기로 큰 화제를 모았다.

“아내의 자적” 때는 대본에 역할에 대한 단서도 많았고 저도 나름대로 방송국에서 취재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모습의 디테일을 강화하자 싶었죠. 말로는 콘소리를 치지만 행동은 미적미적하고, 반대로 미적미적하다 막상 때가 되면 세계 나가는 서형식의 모습을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의 자적” 때는 대본에 역할에 대한 단서도 많았고 저도 나름대로 방송국에서 취재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모습의 디테일을 강화하자 싶었죠. 말로는 콘소리를 치지만 행동은 미적미적하고, 반대로 미적미적하다 막상 때가 되면 세계 나가는 서형식의 모습을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의 자적” 때는 대본에 역할에 대한 단서도 많았고 저도 나름대로 방송국에서 취재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모습의 디테일을 강화하자 싶었죠. 말로는 콘소리를 치지만 행동은 미적미적하고, 반대로 미적미적하다 막상 때가 되면 세계 나가는 서형식의 모습을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의 자적” 때는 대본에 역할에 대한 단서도 많았고 저도 나름대로 방송국에서 취재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모습의 디테일을 강화하자 싶었죠. 말로는 콘소리를 치지만 행동은 미적미적하고, 반대로 미적미적하다 막상 때가 되면 세계 나가는 서형식의 모습을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의 자적” 때는 대본에 역할에 대한 단서도 많았고 저도 나름대로 방송국에서 취재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모습의 디테일을 강화하자 싶었죠. 말로는 콘소리를 치지만 행동은 미적미적하고, 반대로 미적미적하다 막상 때가 되면 세계 나가는 서형식의 모습을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연출뉴스